

# 지역정보화와 지방자치의 세계화 전략

Globalization Strategy of Region Informatization and Local Autonomy



배해영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교수

인디텔 상임이사

Bae, hae-young, Ph. D.

Professor Dept. of Computer &

Engineering Director of Computer Center, Inha University.

6. 27 지방자치선거를 목전에 두고 각 지역은 세계화와 지방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다. 상반된 과제의 동시적 진행이 오히려 정보화사회의 전망에 힘입어 긴밀하고도 상호보완적인 문제로 결합하고 있다.

이 두 과제는 정보화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의 전략, 전술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왔다면 지방화, 세계화는 현실적 과제인 것이다.

## 1. 정보화 사회의 전망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또는 지식, 전문가)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를 뜻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대중이 늘어나고 생활양식의 분화와 개성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인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지역경영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화마인드를 요구한다. 얼마 전 내한한 빌게이츠는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손끝에서 모든 정보를” 만끽하는 사회를 예견했다.

무선네트워크와 지갑 PC, 전자화폐시스템, TV와 컴퓨터단말기 통합, 전자약자, 뇌파컴퓨터, 홈뱅킹전화기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와 전자문화가 생활 그 자체가 될 정도로 S/W, H/W의 엄청난 발전이

예상된다. 정보화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신세대문화가 우리사회에 발을 딛는 이유는 바로 정보화사회의 물결이 밀어닥친데 있다.

생산과 소비의 표준적 규범이 분화되고 차별화된 기호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문성에 기초한 개성창출과 창의성 개발이 주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함께 사회구조가 수평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으며 권위주의가 물러나고 새로운 전자민주주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과 산업, 사회전체가 정보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가운데 정보화의 동기가 된 과학기술은 사회적 요구와 함께 신기술, 뉴미디어 개발의 요인이 되어 확대재생산되는 사회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인간의 의식과 문화를 지배하게 되는 미래사회의 전형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의 예견은 또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발전을 중심에 놓고 세계로의 창구를 열어

나갈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야흐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가 우리 곁에 무거운 숙제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정보화사회를 반세기이상 앞당기고 있다.

국경없는(Borderless) 지구촌화(Glovalization)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지역(Local)의 세계화 전략을 현실적 문제로 고

로 이 흐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은 공공정보화,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 등 세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정비와 함께 국가사회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목전에 둔 각 지역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독자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정보통신센터(이하 인디텔)는 이미 '93년 7월 개통하여 26,000가구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지역정보화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 인디텔은 지역민의 자구적 노력과 시민의식이 결합하여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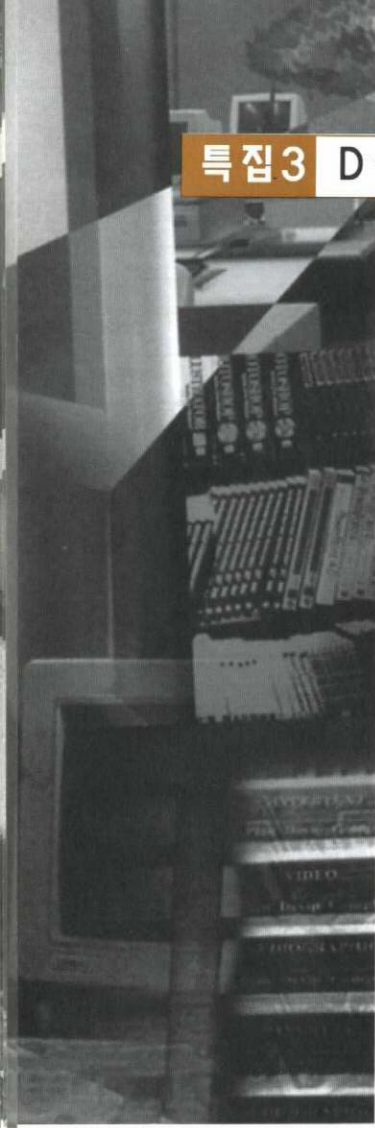
를 지양하고 지역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토대로 상향식으로 구축해간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관·민·학 공동으로 추진된 인디텔 운동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화를 예견한 독자적 지역정보통신시스템 개발과 보급, 공공개념의 정보서비스로 정보화마인드 확산,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와 산업의 정보화를



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2. 지역정보화 정착과 역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국가 정보통신정책 추진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발족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목표로 추진된 까닭이다.

현재 각 지역(인천이외에도 대구, 부산 등지의 민관학 공동출자, 공동운영 플랜이 가시화되고 있다)은 지방자치 실현과 정보화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화전략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을 입안하고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의 정보화 전략은 21세기 첨단과학도시 건설의 전망과 결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지원 방안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권한과 책임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지역내 민·관·학의 자구적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합할 때만이 실질적인 지역정보화가 가능하다.

### 3. 지방자치와 지역정보화의 중요성

6. 27 지방자치 선거는 중요한 지역발전의 고리이다. 주민자치의 실험장이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와 지역내 민주주의의 실현으

로 지역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산업경쟁력을 주도적으로 높여갈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지역정보화는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인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의 문화, 예술, 가정생활 등의 정보는 지역 주민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민간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도록 육성하며 이를 이용하는 정보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의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대민 봉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공 정보(경제, 특허, 저작권, 무역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의 수요를 조사,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보를 발굴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의 운영을 위한 전산화와 이로부터 분배되는 정보는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보화는 그 지역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에 대한 모든 기사, 자료 등 정보의 제한성이 없으며 지역 사람의 피부에 닿는 정보가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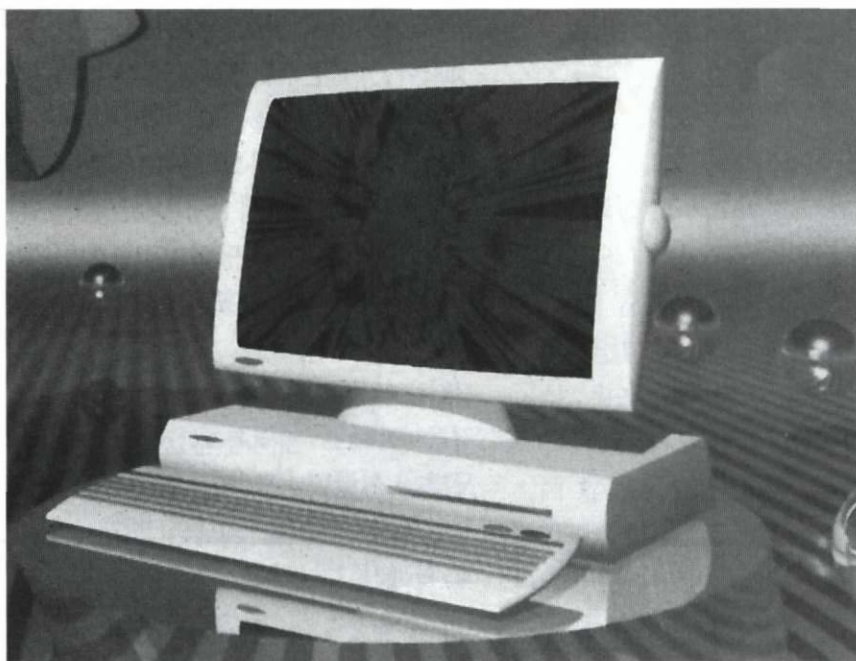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국을 대상으로한 정보통신사업자는 지역 정보화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과 전국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4. 지방자치와 세계화 전략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정보화, 세계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체계 구축, 교통, 물류 시설 등 초고속기반 시설의 중심화(中心化),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다. 정보통신 체계 구축은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기본 체계이다. 지구촌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국제정보통신망(GII)과 관련하여 각 지역은 자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공동으로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실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세계 3대 경제권역을 중심으

로 세계정세의 흐름이 경제블럭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물류, 교통, 항만 등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통합이 필수적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를 통해 정보, 물류의 중심지화 하는 것이 지역거점 확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정보화 과제를 실천할 기술, 정보과학화 기술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민간전문인의 등용과정을 거쳐 정보화 골간(骨幹)들이 맨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Think Globally, Act globally)” 전문가집단이 지역에 뿌리박고 있느냐가 지방의 특화 전략 수립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 1) 지역특화 전략의 필요성

산업사회가 보여준 개발전략은 더이상 정보화사회에는 적당

하지 않다. 발로 뛰던 시대는 가고 어느덧 “전파”와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지역특화 전략은 정보화 진행속도와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역특화전략은 지구촌화 추세와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영, 그리고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지역의 지리, 산업, 사회문화, 정치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 내 위상을 참고하여 장기발전 전망을 세워야 한다.

지역 특수성을 주민들의 승인을 거쳐 세계로 진출하는 보편성으로 변형시키고 “개성있는 상품화” 전략을 지역전반에 유치하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환황해시대 대중국 무역의 거점도시를 지향하며 지역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충청북도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강원도는 지역특화의 주내용을 관광자원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올바른 세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은 자신의 지역적 조건을 토대로 지역특화 전략의 모범을 이끌어내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넓은 의미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질 수 있다.

## 2) 오이타현의 세계화, 정보화 전략

이처럼 세계화 전략에 맞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모범을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교훈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가난에 찌들었던 마을이 일본 전역에서 여권소지

율이 가장 높은 풍요로운 생활공간이 된데는 지역풍토에 맞는 작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전문화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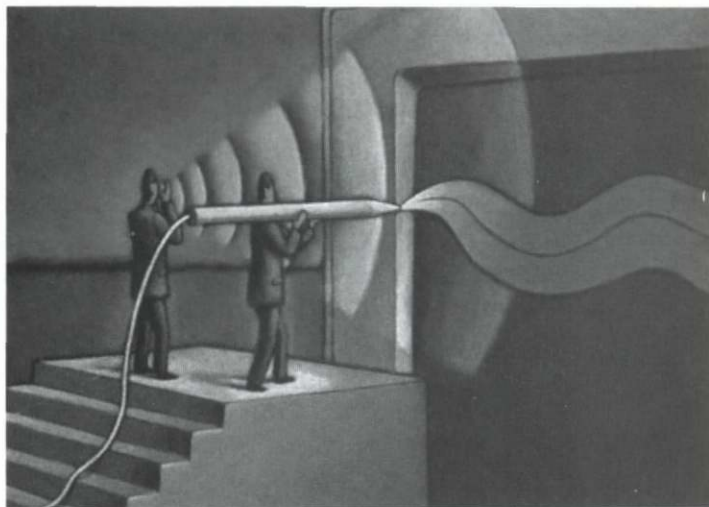
지역정보화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오이타현은 일촌일품운동의 성공을 배경으로 사회생활, 산업면에서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기반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정보화 중추거점인 오이타현은 특히,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사회, 생활, 산업을 총망라한 전국 최초의 종합네트워크인 “도요노쿠니(豊の國)정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오이타현의 정보화 과제는 국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휴먼커뮤니케이션” 도시 만들기 실현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생활환경, 교육문화 등 생활정보시스템 정비, 산업진흥을 목표로 산업정보시스템 정비,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인력양성 프로젝트 추진,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고도정보통신 기반정비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오이타현은 뉴미디어커뮤니티, 텔레토피아, 인텔리전트 시티, 그린토피아, 하이비전 시티 등

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정보화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먼커뮤니티 도시기반 정비를 위해 지역종합네트워크 구상과 정보중추기능 거점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파크 확충, 인텔리전트타운 건설, 소프트 프로방스(S/W村), 하이퍼 네트워크사회연구소 구상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5.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과제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전략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하며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이전의 “통제”로부터 “조정”과 “협조”로 변모될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의 한도내에서 현실적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으면 지구촌화 과정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화 전략과 정보화전략을 동일한 맥락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화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특화 사업의 구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전문인력을 세계화 전략에 과감하게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지역발전 전략에 어느 정도로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전략과 도시(농촌)개발전략을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첨단과학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21세기 미래형 도시개발의 장기적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로 진출하는 정보화 주요거점도시로의 전망을 가진 광역시의 경우 텔레포트(통신항) 건설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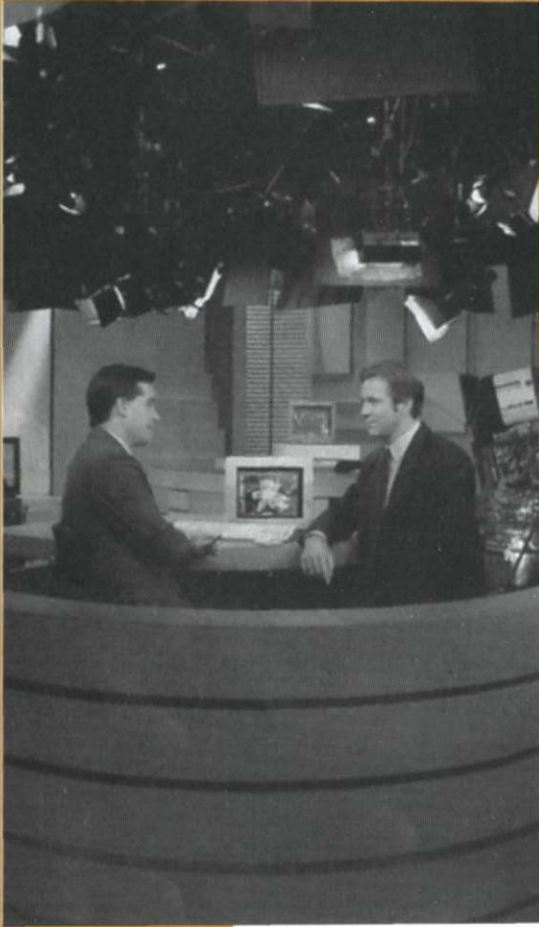
지역개발의 전략이 지역마다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듯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도 다를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지방자치 실현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과제를 동시에 앞두고 있다. 각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추진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발전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적응하면서 지역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포괄적 범주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지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뚜껑을 열어보아야 하며 시민의 손과 의식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the

# database



## 기획논단

### ■ 데이터베이스 포커스

▷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동향과 전망(II)

### ■ 데이터베이스 리포트

▷ 객체지향기술 :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 고성능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분산/병렬 DBMS기술/김용

### ■ 법제코너

▷ 불건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심사제도/신각철

